

1부. 예수님의 생애

‘안식교의 거짓 주장을 바로잡으며’

머 리 말

처음 시작은 다니엘서의 70이레 예언이었다. 인터넷에서 안식교인들이 올린 다니엘서의 70이레 예언을 보게 되었고 역사적 연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0이레 예언의 시작과 끝 연도,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령을 내린 페르시아 왕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안식교는 그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오류 투성이었다.

안식교는 아닥사스다 왕 7년이 기원전 457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기원전 465년에 즉위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7년은 458년이다.(465-7=458) 성경은 고레스 원년(대하 36:22, 단1:21, 스 1:1), 다리오 원년(단 9:1, 단 11:1)과 같이 페르시아 왕이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왕이 즉위한 다음 해부터 1년으로 기록한다.

안식교는 기독교의 첫 순교자 스테반이 기원후 34년에 순교함으로써 70이레 예언을 ‘다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언의 완성자는 33년 4월 1일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시다. 시작과 끝 연도를 1년씩 뒤로 늘리면서 예언의 완성자를 스테반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분뿐이신 중보자의 자리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아서 마리아에게 넘긴 카톨릭처럼.

다니엘서의 70이레 예언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일을 알아야만 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33년 4월 1일이 그 날임을 알게 되었다. 이미 신학자 중 33년 4월 1일이 십자가 대속일임을 주장한 분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성경을 통독하던 중 하나님이 몇 가지 중요한 새로운 사실도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날은 유대력으로 7월 7일인 솔로몬의 성전 봉헌일이었으며, 탄생하신 날은 기원전 4년 3월 13일 유대의 존경받는 두 율법사 유다(Judas)와 맛디아(Matthias)가 해롯에 의해 화형당한 날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전도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책을 완성하고 난 뒤, 이제 이 책만 전하면 많은 사람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겠구나 라는 생각에 나는 약간의 흥분 상태에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으나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나있던 내가 이 문서에 있는 진실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을 마치 눈앞에 있는 사물을 보듯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문서의 첫 장을 읽을 마음조차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

대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도구 중 하나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라며, 전도자에게는 말씀을 전하는데 소용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란다.

카톨릭과 안식교를 비롯한 이단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연도들에 대해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거짓을 만들어내었고 성경에 기록된 페르시아의 왕과 로마 황제의 재위 연도까지 오염시켰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한 인터넷에는 이러한 과정으로 오염된 자료들이 넘쳐난다.

신뢰할만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검증된 자료로 인정된 성경,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요세푸스의 역사서, NASA의 천문자료 등을 사용하였으며, 날짜의 정확성을 위해서 양력을 유대력으로 변환해주는 사이트들을 참조하였다. 특히, 역사적 기록 중 왕의 재위 연도와 관련해서는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권위 있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만을 참조했다. 문서에서 인용한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영문판이다.

<제목 차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일	1
바벨론 유수	3
다니엘서의 70이레 메시아 예언	4
예루살렘 재건령	5
예수님의 생애	11
솔로몬의 성전 봉헌일	11
예수님의 공생애	12
예수님의 부활	14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강림	15
예수님의 탄생	16
크리스마스	21
동방의 별	22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	23
수건에 덮인 진실	24
예정(선택과 유기) :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	25
칭의(거룩하게 나는 것) : 생명 나무이신 그리스도	27
성화(거룩하게 살아감) :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29
기원전 6~4년의 유대력	31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유월절 준비일임을 3번(14절, 31절, 42절)이나 강조한다. 유월절 준비일은 희생제물인 양을 준비하는 날이며 아빡월이라고도 하는 니산월(1월) 14일이다. 이날 해 질 무렵에 유월절 희생제물로 양을 잡는다. (출 12:6 이 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양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구약에서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하루만 지켰으며, 바로 다음 날 15일~21일까지 7일을 무교절로 지켰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8일간의 명절 기간 전체를 유월절 또는 무교절로 불렀으며 (눅 22:1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니산월 14일을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막 14:12)이라고도 불렀다.

	니산월(1월)							
	14	15	16	17	18	19	20	21
구약	유월절	무교절						
신약	유월절 또는 무교절							
	유월절 준비일							
	무교절 첫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일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이면서 유대 시간으로 9시(마 27:46~50)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한 오후 3시이다. 기원후 27~35년 중 니산월 14일이면서 금요일인 날은 기원후 33년 4월 1일 뿐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인 그레고리력 기준으로 4월1일이다. (그 당시 양력인 율리우스력으로는 4월3일이다.)

다음은 그레고리력을 히브리력으로 변환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다. 구글에서 'Hebrew Calendar Converter'로 검색하면 더 많은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이트 중 하나에 접속해서 다음의 날짜들을 넣어보면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ko.calcuworld.com/달력/히브리력 www.fourmilab.ch/documents/calendar
27년 4.7(수), 28년 3.27(월), 29년 4.14(토), 30년 4.3(수), 31년 3.24(월), 32년 4.12(월), 33년 4.1(금) , 34년 3.20(월), 35년 4.9(월)

예수님의 생애

기원후 33년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31일 니산 13 니산 14 최후의 만찬	1 니산 14 십자가 대속	2 니산 15 무덤속 안식
3 니산 16 초실절 예수님 부활						

안식일은 예수님이 온전히 무덤 속에만 계셨던 단 하루를 예표하는 것이다. 유대인의 하루는 18시~다음날 18시까지이다. 니산월 14일은 최후의 만찬이 열렸던 양력 3.31일 밤 18시~4.1일 18시까지이다. 예수님은 이날 내내 깨어계셨으며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4.1일 만우절의 유래에 관한 여러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4.1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일이라는 것이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카톨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연도를 30년으로, 이단 종교인 안식교(제칠일 예수재림교)는 31년으로 말하고 있으나 30년, 31년의 니산월 14일은 모두 금요일이 아니었다.

그레고리력으로 기원후 33년 4월 1일 (율리우스력으로는 4월3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일로 보는 천문학과 개신교 신학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이름	소속·저서
Harold W. Hoehner (1935-2009)	댈러스 신학교 교수, 『Chronological Aspects of the Life of Christ』 (1977)	예수님은 A.D. 33년 4월 3일(율리우스력)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레고리력으로는 4월 1일. 사역 시작 A.D. 29년 가을, 약 3년 반 사역으로 계산.
Colin J. Humphreys & W. G. Waddington	케임브리지대 물리학자, 천문학 계산 논문 (1983, Nature 논문) ¹⁾	천문학적으로 A.D. 33년 4월 3일(율리우스력)에 월식(부분 월식)이 있었으며, 이는 행 2:20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과 일치한다고 분석.

Jack Finegan (1908-2000)	『Handbook of Biblical Chronology』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A.D. 33 년 4월 3일(율리우스력)로 계산 하며, 유월절 달력과 복음서 기 록의 일치를 강조.
D. A. Carson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 학교,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PNTC)	요 19:14을 율법적 유월절과 구 별하여, 공관복음의 금요일 십 자가 사건과 조화시킴. A.D. 33 년 금요일 견해를 지지.
Andreas J. Köstenberger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Hoehner의 견해를 따르며, A.D. 33년 4월 3일(율리우스)/4 월 1일(그레고리) 금요일 십자가 설을 지지.
Craig Blomberg	덴버 신학교 교수,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the Gospels』	A.D. 33년 금요일 십자가설을 가장 일관성 있는 해석으로 인 정.

바벨론 유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직후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라가 나뉘었으며,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국만을 다스렸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후에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한다.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나 아하스, 므낫세와 같은 왕들에 의해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은 불타버린다. 유다의 왕족, 제사장, 귀족 등 지도층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바벨론 유수라고 부른다. 곧 설명할 다니엘은 이때 끌려간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바벨론은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한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모두 풀어주고 예루살렘에 성전 재건을 명령한다.

1) <https://www.nature.com/articles/306743a0>

다니엘서의 70이레 메시아 예언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기원후 33년이 이미 500여 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다. 구약 다니엘서 9장의 70이레 예언은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는 예언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70이레 마지막 연도인 기원후 33년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4절 :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이레의 기한이 지나면 죄가 끝나며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다. 히브리어로 마쉬아흐(메시아) 또는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는 뜻이다. 구약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왕 또는 제사장, 선지자를 뜻하고, 신약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예수님이 세례와 함께 성령을 받으시면서 만왕의 왕이자 믿는 자들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25절 :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the Messiah)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 1이레는 1주, 즉 7일이며 예언적 해석으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므로 7년간의 기간이다.
- 70이레는 70주(490일), 즉 490년이다. 예루살렘 재건령이 내린 아닥사스다왕²⁾ 7년(기원전 458년)으로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 70번째 이레는 기원후 33년에 끝난다. (490 - 458 + 1 = 기원후 33년) ³⁾
- 이 마지막 한 이레는 기원후 27년~33년의 7년이다.

26절 :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Messiah)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 스 7:7절. Artaxerxes 1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그의 즉위년은 기원전 465년.

3) 1을 더한 이유는 0년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기원후 1년과 기원전 1년 간의 연수는 1년인데 “연수 1년 - 기원전1년 = 0년”이므로 1을 더해야 기원후 1년이 된다.

예수님의 생애

- 마지막 한 이레(기원후 27년~33년)에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그 후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예언이다. 실제로 기원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원전 4년에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헤롯은 같은 해에 70세의 나이로 죽었다. 70이레 예언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완전수 70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나타낸다.

27절 :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in the midst of the week)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cease. 그치게하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카톨릭)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 in the midst of the week은 “그 이레 동안에”와 ‘그 이레의 절반에’ 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구글 영어 사전에서는 ‘주중에’로 번역된다. 히브리어로는 헤치(חֶמֶשׁ)라는 단어로 반, 중앙, 가운데라는 뜻이다.⁴⁾ 출애굽기 12장 29절의 밤중에~라는 표현에서도 사용되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 이 마지막 한 이레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마지막 7년 대환난을 의미하는 중의적인 표현이다. 기원후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시면서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신 것과는 반대로, 7년 대환난의 중간에 스스로 메시아로 선언한 적그리스도인 교황이 제사와 예물, 곧 예배와 기도를 금지할 것이다.

예루살렘 재건령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예루살렘 재건령 이전에 재건 중지령이 먼저 내려졌다.

1. 고레스(Cyrus 2세) 왕의 성전 재건령 (기원전 538년) (대하 36:22~23, 스 1:1~3)
이 조서는 성전 재건령이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성읍(city)과 성곽(the walls)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스 4:12) 이방 민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거할 가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성전이 완공되기 전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옥에 거주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4) 소금성경 : <https://saltbible1.cafe24.com/krv02012029/>

것이 옳으냐”(학 1:4)

2. 아닥사스다(Cambyeses 2세) 왕의 예루살렘 성 재건 중지령 (스 4:21~24)

이방 민족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보내서 재건을 방해한다. 이 상소를 받아들인 왕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예루살렘 성(City)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린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서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Artaxerxes 1세) 왕이 아닌 캄비세스 2세 (Cambyeses II)이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제11권 2장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4:7~23절의 이 아닥사스다 왕과 4:6절의 아하수어로 왕을 모두 고레스 왕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세푸스의 기록이 사실인 것은 페르시아 왕의 연대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23~24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나오고 이 조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나오는데, 아하수어로,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 왕보다 후대의 왕이기 때문이다.

페르시아 왕	통치 기간 (B.C.)	비 고
고레스 (Cyrus II)	538-530	유다 귀환 칙령
캄비세스 (Cambyeses II)	530-522	고레스의 아들
다리오 1세 (Darius I)	522-486	성전 완공 때의 왕
아하수어로 (Xerxes I)	486-465	에스더서의 왕
아닥사스다 1세 (Artaxerxes I)	465-424	예루살렘 재건령을 내림

아하수어로와 아닥사스다는 특정 왕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당시 행정 문서에서 왕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칭호이기도 했다.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아하수어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이나 최고 통치자를 지칭할 때 사용했고,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 왕실에서 사용되는 공식 왕명으로서 페르시아 왕이 즉위하면 공식 칙령이나 행정 문서에서 Artaxerxes 라는 이름으로 기록했다. 즉, 왕의 이름이 바뀌어도, 칭호처럼 공식 문서에서 사용했다.

이런 이유로 성경 주석가 메튜 풀(Matthew Poole)은 에스라 4장의 아하수어로(Ahasuerus)와 아닥사스다(Artaxerxes)가 같은 왕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4:8~6:18절은 히브리어가 아닌 당시 통용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4장의 다른 부분도 아람어 원문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3. 다리오(Darius 1세) 왕의 성전 재건령(스 6:1~12)

악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그 내용 그대로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조서이다. 다리오 6년인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된다.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한 기원전 586년으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 70년은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 예언되어 있었다.

예레미야(렘) 29:10 -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4. 아닥사스다(Artaxerxes 1세)왕 7년(기원전 458년)의 1차 예루살렘 재건령(스 7장)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관을 세우라는 조서이며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재판은 성문 앞에서 열리기 때문에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허가하는 조서이다. 즉, 다니엘서의 예루살렘 재건령이다.

5. 아닥사스다 왕 20년의 2차 예루살렘 재건령 (느 1:1~3, 2:1~9)

이미 중건된 예루살렘성은 이방 민족에 의해 훼파되고 성문들은 불로 태워졌다.

느헤미야(느) 1:3 -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the wall of Jerusalem)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느) 2:13 -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dung port)에⁵⁾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the walls of Jerusalem)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괴된 예루살렘 성곽과 성문을 재건하라는 2차 재건령이다. 52일 만에 재건된다.(느 6:15) 솔로몬 왕 시절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7년이 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는 13년이 걸렸다.(왕상 6:38~7:1), 스룹바벨이 제 2성전을 재건하는 데에는 최소 4년 이상이 걸렸다.⁶⁾ 52일 만에 끝난 느헤미야의 재건은 무너진 곳을 보수한 부분적 재건임을 알 수 있다.

고레스 조서가 내려진 기원전 538년과 성전 파괴~재건연도인 기원전 586~516년은 브리태니커를 참조하였다.⁷⁾

카톨릭, 안식교 등의 이단 종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연도와 날짜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도록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혼란을 주고 있다. 다니엘서의 70이레 예

5) 사람이나 동물, 제사에 쓰이는 희생제물의 배설물을 성 밖으로 내보내는 문.

6) 다리오왕 2년 6월 24일(학 1:15) ~ 다리오왕 6년 12월(아달월) 3일(스 6:15)

7)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에서 "바빌론 유수" 로 검색

언에 대해서 알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면 안식교인들이 퍼트린 잘못된 사실들로 넘쳐난다.

안식교는 아닥사스다 왕 7년이 기원전 457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기원전 465년에 즉위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7년은 458년이다.(465-7=458) 성경은 고레스 원년(대하 36:22, 단1:21, 스 1:1), 다리오 원년(단 9:1, 단 11:1)과 같이 페르시아 왕이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왕이 즉위한 다음 해부터 1년으로 기록한다.

안식교는 기독교의 첫 순교자 스테반이 기원후 34년에 순교함으로써 70이레 예언을 ‘다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닌 스테반이며 예수님은 31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

유대력(히브리력)

유대인들은 원래 태음력을 사용했으나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 바벨론의 영향으로 양력과 음력을 혼합한 태음태양력을 사용한다. 이것이 동양으로 건너와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음력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 한국 등에서 사용하는 음력과 유사하다.

월	월 명칭		일수	주요 절기. 비고	양력
1	니산 아빍	Nisan Abib	30	14~21일 유월절(Pessah),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 중 첫 안식일 익일	3~4월
2	이야르	Iyyar	29		4~5월
3	시반	Sivan	30	오순절: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5~6월
4	타무즈	Tammuz	29		6~7월
5	아브	Av	30		7~8월
6	엘룰	Elul	29		8~9월
7	티슈리	Tishri	30	1일 나팔절(설날) 10일 속죄일(Yom Kippur) 15~21일 초막절(Sukkot) 22일 호산나 랍바	9~10월
8	헤슈반	Heshvan	29		10~11월
9	키슬레브	Kislev	30	수전절(Hanukkah) : 25일부터 8일간	11~12월
10	테베트	Teveth	29		12~1월
11	세바트	Shevat	30		1~2월
12	아달	Adar	29~30	13일 에스더 금식일 14일 부림절(Purim) 평년은 29일, 윤년은 30일	2~3월
윤달	아달2 베 아달	Adar2 Veadar	29	2,3년마다 한 번씩 윤달	2~3월

태음력과 마찬가지로 태음태양력은 달의 주기를 한 달로 정한다. 보름에서 보름까지인 달의 주기는 29.5306일이기 때문에 격월로 30일, 29일을 번갈아 사용한다. 1년이 354일이며 지구의 공전주기인 365.242199에서 약 11일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태음태양력은 양력을 기준으로 윤달을 넣어 달력을 맞춘다. 유대력의 어떤 달이 양력의 월 범위에서 벗어나면 그 연도에 윤달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윤달은 2~3년에 한 번씩, 19년에 7번 돌아온다.

태음태양력은 양력을 기준으로 윤달을 추가하므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양력과 연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가령, 오늘이 2020년이라면 기원후 20년은 그레고리력으로도, 유대

예수님의 생애

력으로도 똑같이 2000년 전인 것이다.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 기록된 다니엘서는 태음력이 아닌 태음태양력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양력과 연수가 다르지 않다.

구약의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는 모두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탄 날이 구약의 열왕기하에는 아브월(5월) 7일로, 예레미야서에는 5월 10일로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는 태음력으로, 예레미야서는 태음태양력으로 기록된 것이다.

열왕기하(왕하) 25:8~9 -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열아홉째 해 오월 칠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레미야(렘) 52:12~13 -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열아홉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유대력 참고사항

- 1월은 니산월 또는 아빕월이라고 부른다. 윤달은 아달2 또는 베아달로 부른다.
- 키슬레브월은 성경의 기슬래월이다.
- 유월절은 무교절,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
- 유월절과 초막절은 실제로는 8일간의 명절이다.
- 구약에서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하루만 지켰으며, 바로 다음 날 15일~21일까지 7일을 무교절로 지켰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8일간의 명절 기간 전체를 유월절 또는 무교절로 불렀다.(눅 22:1)
- 초막절은 7일간이지만 그다음 날도 성회가 열리므로 8일째 되는 티슈리월(7월) 22일을 초막절 마지막 날로 부른다. 이날은 호산나 랍바(Hoshana Rabbah)로 불리는 큰 구원의 날이다.
- 나팔절이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이면 그다음 날로 미룬다.

그레고리력

이 문서의 모든 양력은 율리우스력이 아닌 그레고리력이다. 그레고리력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양력 달력이다.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1582년에 기존 율리우스력의 오차를 수정한 그레고리력을 시행했다. 이 그레고리력을 과거로 소급 적용한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

안식일과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 부림절 등 유대인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헤롯이 유대 최고의 두 율법사를 화형에 처한 3.13일 금요일에 탄생하셨으며, 이날 월식이 있었다. 예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 하나님께 봉헌한 날인 티슈리월(7월) 7일에 세례와 함께 성령을 받으셨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날과 같은 4.1일에 십자가에 희생되셨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일

초막절은 티슈리월(7월) 15~21일, 7일간이지만 그다음 날도 성회가 열리므로 8일째인 티슈리월 22일을 끝날로 부른다. 때문에, 초막절은 실제로는 8일간의 명절이다.

레위기(레) 23:36 -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뒤 초막절 직전에 한 번 더 초막절과 같은 기간의 봉헌제를 드렸다. 열왕기상 8장에는 칠일과 칠일 도합 십사일간을 절기로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는 8일째 드린 성회를 포함해서 8일씩 두 번 16일을 지킨 것이다. 즉, 초막절 첫날로부터 8일 전인 티슈리월(7월) 7일이 성전 봉헌제 첫날이다. 이날은 일년 중 하나님의 완전수 7이 두 번 반복되는 유일한 날이다.

열왕기상(왕상) 8:65~66 - 그 때에 솔로몬이 칠 일과 칠 일 도합 십사 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

역대하(대하) 7:8~10 - 그 때에 솔로몬이 칠 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칠 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초막절)를 칠 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이십삼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

예수님의 생애

기원후 29년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티슈리 7 성전 봉헌일	2 티슈리 8 봉헌제 2일	3 티슈리 9 봉헌제 3일	4 티슈리 10 봉헌제 4일	5 티슈리 11 봉헌제 5일	6 티슈리 12 봉헌제 6일
7 티슈리 13 봉헌제 7일	8 티슈리 14 8일째 성회일	9 티슈리 15 초막절 1일	10 티슈리 16 초막절 2일	11 티슈리 17 초막절 3일	12 티슈리 18 초막절 4일	13 티슈리 19 초막절 5일
14 티슈리 20 초막절 6일	15 티슈리 21 초막절 7일	16 티슈리 22 티슈리 23 초막절 8일	17 티슈리 23			

유대인의 하루는 양력으로 18시부터 그다음 날 18시까지이다. 위의 기원후 29년 달력을 보면 초막절 8일째인 티슈리월 22일은 위의 달력처럼 양력 16일 18시까지이다.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낸 열왕기상의 ‘여덟째 날’과 역대하의 ‘일곱째 달 제이십삼 일’은 서로 다른 날을 말하는 것 같지만 양력으로는 같은 날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오순절), 초막절인데 유월절의 주제는 희생, 오순절의 주제는 첫 곡식의 추수, 초막절의 주제는 성령과 구원이다. 유월절에 십자가의 희생이 이루어지고, 오순절에 첫 추수한 곡식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였듯이, 초막절은 예수님이 세례와 함께 성령을 받으신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시작한 때는 누가복음 3:1절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이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기원후 14년에 즉위했으므로⁸⁾ 재위 15년은 기원후 29년이다. 성경의 예언서에는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이 하나님의 숫자로 언급된다 (다니엘서과 요한계시록의 42달, 한때 두때 반때). 36은 십자가 대속일 당시 예수님의 나이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누가복음과 야고보서에 암시되어 있다. 누가복음과 야고보서에 의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눅4:25, 약 5:17) 많은 이적을 행한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며,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3년 6개월이 신약에는 기록

8)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에서 "티베리우스"로 검색

예수님의 생애

되었다는 점에서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십자가 대속일인 33년 4.1일로부터 3년 6개월 이전일은 29년 10.1일이다. 이날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날, 곧 티슈리월(7월) 7일이다. 이날 성전⁹⁾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것이다. 10.4일은 티슈리월 10일로 1년 동안 쌓은 죄에 대해 속죄하는 속죄일(욥 키푸르)이었다. 10.9일은 초막절 첫날이었다.

기원후 29년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티슈리 7 예수님 세례 성전 봉헌일	2 티슈리 8	3 티슈리 9	4 티슈리 10 속죄일	5 티슈리 11	6 티슈리 12
7 티슈리 13	8 티슈리 14	9 티슈리 15 초막절 1일	10 티슈리 16 초막절 2일	11 티슈리 17 초막절 3일	12 티슈리 18 초막절 4일	13 티슈리 19 초막절 5일
14 티슈리 20 초막절 6일	15 티슈리 21 초막절 7일	16 티슈리 22 초막절 8일 호산나랍바				

초막절 기간 중 성회가 열리는 8일째 마지막 날을 유대인들은 “이제 큰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뜻의 호산나 랍바(Hoshana Rabbah)로 부른다. 이날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는 행위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반석은 예수님을, 물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상징한다.

이사야(사) 12:3 -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요한복음(요) 7:37~39 - 명절(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이 세례와 함께 성령을 받으신 날은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15년인 기원

9) 요 2:19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생애

후 29년 10.1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생애 기간은 3년 반(기원후 29년 10.1일~33년 4.1일)이며 유대인의 나이로는 32세~36세이다.

누가복음 3:23절에는 예수님이 약 삼십 세쯤(about thirty years of age)에 가르침을 시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누가가 기록한 “대략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공생애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15년이 누가복음에서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정확한 저울이 있음에도 손으로 물건을 들어서 무게를 가늠하려는 것과도 같다.

예수님의 탄생연도는 기원전 1년이 아니다. 브리태니커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영아살해를 자행한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었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연도는 기원전 4년 이전이어야 한다. 티베리우스 재위 15년인 기원후 29년은 헤롯이 죽은 기원전 4년으로부터 32년 후이다.(기원후 29년 = -4 + 32 + 1). 따라서, 공생애의 시작 나이를 30세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기록과도 맞지 않는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삼십 세쯤’은 ‘삼십 세 초반’으로 해석해야 한다. 32살까지를 서른 초반이라고 하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는 BC 4년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BC 5~6년에 나셨다면 공생애 시작 나이는 33~34세이므로 누가는 ‘서른 중반에’라고 기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중에 보내신 유월절이 네 번 기록되어있다.(요 2:23, 요 5:1, 요 6:4, 요 12:1) 이 중 5장 1절은 단지 “유대인의 명절”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바로 다음 절에 희생제물인 양을 성안으로 들여보내는 양문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유월절로 여겨진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대체로 3년에서 3년 6개월로 추정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기원후 30년에 이루어졌다는 카톨릭의 주장대로라면 공생애 기간은 티베리우스 재위 15년인 기원후 29년 10.1일부터 30년 4.3일(니산월 14일)까지로 6개월에 불과하다. 이것은 성경 기록과 맞지 않는다. 더구나 30년 4.3일은 금요일이 아닌 수요일이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째 되는 니산월 16일(양력 4월 3일)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이날은 초실절이기도 하다. 유월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은 초실절이라 하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친다.(레 23:10~11) 이 첫 이삭 한 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현재의 부활절(Easter)은 춘분 후 첫 번째 보름달 직후 맞이하는 첫 번째 일요일¹⁰⁾로

예수님의 생애

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날이 아니다. 현재의 부활절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이며 바벨론의 태양신 니므롯(Nimrod), 달의 여신 이쉬타르(Ishtar), 부활한 니므롯인 담무스(Tammuz)를 기념하는 날이다.

춘분(春分, vernal equinox)은 태양 황경이 0°가 되는 때를 말한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로, 이날 이후부터 하루 중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진다. 때문에 춘분은 담무스의 탄생일(부활일)로 여겨진다. 춘분은 양력으로 3월 20일 또는 3월 21일이다.

춘분 후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은 이쉬타르의 탄생일이다. 이쉬타르의 탄생일은 춘분 후 첫 보름달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3~4월이다. 유대력으로는 니산 15일, 아달 15일, 윤달(아달2) 15일 중 하나이다. 기원후 33년의 니산 15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날이면서 이쉬타르의 탄생일이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 4월 16일은 그리니치 세계 표준시 기준으로는 2014년 4월 15일이었다. 2014년 4월 15일은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15일이며 이쉬타르의 탄생일이었다. 이쉬타르의 영어식 이름은 부활절을 뜻하는 이스터(Easter)이다. 하늘로부터 유프라테스강에 알(Egg)이 내려와 이쉬타르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물(주로 어린아이)의 피에 적신 달걀을 제단에 바치던 풍습에서 부활절 달걀이 유래하였다.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강림

오순절은 구약에서 칠칠절, 맥추절로 불렸으며 초실절을 첫날로 하여 50일째 되는 날이다.(레 23:15~22) 오순절은 추수한 곡식 가루에 누룩을 넣어 만든 떡 두 개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며 첫 번째 추수한 곡식인 제자들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초실절 4.3일(일)로부터 40일 후인 5.12일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행 1:9~12) 그로부터 10일 후, 즉 부활 후 50일이 되던 오순절 5.22일(일) 제 삼시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다.(행 2:1~15) 유대인의 시간 3시에 6시간을 더한 오전 9시이다.

10) 보름달이 일요일이면 그다음 주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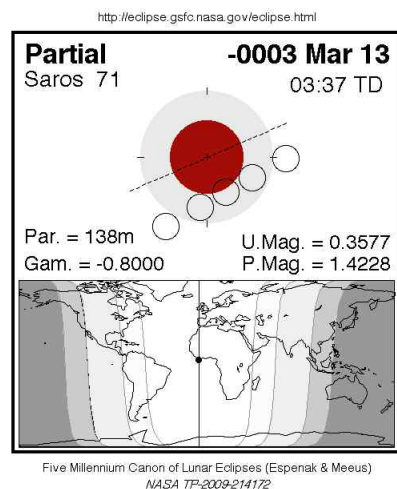
예수님의 생애

기원후 33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 이야르 25 예수님 승천		
22 시반 6 오순절 9시 성령강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기원전 4년 3.13일(금) 밤에 탄생하셨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Ⅱ 17권 6장 2절~4절(p457~460)에 의하면 월식이 있던 날 유대 최고의 율법사인 유다(Judas)와 맛디아(Matthias)가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헤롯 성전에 걸려있는 금독수리 우상을 부순 죄로 헤롯에 의해 화형당한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의 죽음은 기원전 4년에 있었던 월식과 유월절 사이에 있었다. 유대 고대사Ⅱ p460 주석에 따르면 이 월식이 있던 날은 기원전 4년 3.13일(금)이다. 나사(NASA)의 월식 기록도 이것을 뒷받침한다. 나사 자료 중 0000은 기원전 1년이기 때문에 -0003은 기원전 4년을 의미한다.



- 기원전 100~1년 월식 :

<https://eclipse.gsfc.nasa.gov/LEcat5/LE-0099-0000.html>

- 기원전 4년 3월 13일 월식:

<https://eclipse.gsfc.nasa.gov/5MCLEmap/-0099-0000/LE-0003-03-13P.gif>

누가복음 1장은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할 때 아들 세례요한의 잉태 소식을 들었다고 전한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한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Ⅰ 7권 14장 7절(p486)에 따르면, 성전 봉사는 24 반열별로

예수님의 생애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1주씩 섬긴다. 즉, 반월별로 반년에 한 번씩 봉사한다. 봉사의 기준일은 니산월 1일 또는 유대인의 설날인 티슈리월 1일 나팔절이다. 니산월 1일은 모세가 처음 성막을 세운 날이지만 유대인의 절기는 아니며 성회가 열리는 날도 아닌 반면, 나팔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념할 날로 명하신 날이면서 성회가 열리는 날이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처럼 나팔은 예언의 실행을 알리는 상징이다.

레위기(레) 23:24~25 -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두 율법사의 순교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된다. 기원전 6년의 나팔절은 9월 17일(목)이었다. 원래 9.16일(수)이지만 나팔절이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이면 다음날로 미뤄진다.

기원전 6년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6 티슈리 1	17 티슈리 2 나팔절		

초막절 기간 1주는 모든 제사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당번 순서에서 제외된다. 8 반월인 아비야 반월¹¹⁾의 첫 봉사일은 나팔절로부터 8주와 초막절 1주를 더한 11.13일(금) 18시부터이다. 안식일은 금요일 18시부터 토요일 18시까지이다.

기원전 6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3 헤슈반 29 사가랴 봉사일	

마리아가 잉태한 날은 이날로부터 6개월 후인 기원전 5년 5.13일(목)이다.¹²⁾ 이날은 이야르월 3일이지만 밤에 천사 가브리엘에게 잉태 소식을 들었다면 하루가 지난 이야르월 4일이다. 유대인의 하루는 18시~다음날 18시까지이다.

11) 대상 24:10절 -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12) 카톨릭은 5월달을 성모 성월의 달. 즉, 마리아의 달로 기념한다.

예수님의 생애

기원전 5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3 이야르 3 이야르 4 마리아 잉태	이야르 4	

마리아의 잉태일인 기원전 5년 5.13일로부터 임신 기간 10개월째 되는 날은 기원전 4년 3.13일 금요일이다. 이날은 두 율법사가 순교한 날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임신 10개월 차에 나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비밀들은 비유와 암시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임신 10개월 차에 나셨다는 것은 세례요한이 태어난 날을 통해서 암시되어 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후 마리아가 자신의 잉태 사실을 알았고(눅 1:26), 그날 바로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3개월을 함께 지냈다. 즉,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잉태한 지 9개월 차 되는 달까지 함께 지냈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떠난 후 세례요한이 태어났다.(눅 1:39~40, 눅 1:56~57) 이 같은 사실들은 세례요한이 잉태된 지 10개월 만에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다. 십계명에서처럼 10은 하나님의 숫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일은 기원전 4년 3.13일 금요일이며, 이날 있었던 두 율법사의 순교는 이날 탄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가 되었다. 3.13일은 아달월 12일이지만 밤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루가 지난 아달월 13일 안식일이다. 즉, 양력으로도 유대력으로도 13일의 금요일이다. 에스더기에 의하면 아달월 13일은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고 그들을 진멸한 날이다.(에 8:11~13절) 기원전 4년 3월의 달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이 모두 나타나있다.

예수님의 생애

기원전 4년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 아달 11 에스더 금식일	13 아달 12 아달 13 예수님 탄생	14 아달 13
15 아달 14 부림절	16 아달 15 수산 부림절	17 아달 16	18 아달 17	19 아달 18	20 아달 19	21 아달 20 예수님 할례
22 아달 21	23 아달 22	24 아달 23	25 아달 24	26 아달 25	27 아달 26 안티파터 처형	28 아달 27
29 아달 28	30 아달 29	31 니산 1				

예수님 탄생일 전날은 에스더 금식일이었다. 원래는 아달월 13일인 3.14일(토)이지만 이날이 안식일이고, 그 전날도 안식일 준비일이라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목요일인 3.12일이 에스더 금식일이다. 예수님이 나신 지 삼 일째 되는 3.15일(일)은 부림절(Purim)이다.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다. 부림절은 죄로 인해 모두 죽게 된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을 예표한다.

이 절기들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3.12(목)일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금식일이며, 3.13일(금)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대속을, 3.15일(일)은 삼 일째 되는 일요일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 유대인들은 아달월 14일을 부림절로 지켰고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의 유대인들은 아달월 15일을 부림절로 지켰다.(에 9:18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에서는 수산 부림절을 지킨다.

수산 부림절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 증인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일 것이다. 두 증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죽임을 당한 뒤 삼일 반, 즉 4일 만에 부활한다고 예언되어 있다.(계 11:8~11)

요한복음 3장 13절은 예수님의 탄생, 3장 15절~16절은 영생, 곧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의 생애

3:13 -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탄생일)
 3:15 -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부림절)
 3:16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수산 부림절)

예수님은 나신 지 8일째 되는 3.21일(토) 안식일에 할례를 받으셨다.¹³⁾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이 두려워 동방박사들이 처음 별을 발견했을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의 2세 이하 영아를 모두 죽였다. 이 영아살해는 3월 말에 실행되었을 것이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처음 발견한 날은 아마도 예수님 탄생일로부터 1년 반 전인 기원전 6년의 나팔절이었을 것이다.(양력으로 9월 17일)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 1권 33장 7절(p170)에 의하면 헤롯은 죽기 5일 전 자신의 아들 안티파터(Antipater)를 처형했다. 헤롯은 3.13일의 월식 이후 며칠이 안 되어 유월절을 보지 못하고 70세의 나이로 여리고 성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브리태니커에 의하면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었다.¹⁴⁾ CF. Lewin의 저서 「거룩한 휴일(Fasti Sacri)」에 의하면 헤롯이 죽은 날은 기원전 4년 4.1일이다.¹⁵⁾ 이날은 십자가 대속일인 기원후 33년 4.1일로부터 정확히 36년 전이며 니산월 2일이다.

기원전 4년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니산 2 헤롯 사망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니산 14 유월절 준비일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죽자 유언장에 의해 헤롯의 아들 아겔라오(Archelaus)가 후계자가 되었고(마 2:22), 또 다른 아들, 안티파스(Antipas), 빌립(Philip)은 분봉 왕이 되었다. 아겔라오는 아버지가 죽은 뒤 율법에 따라 7일간 애도하였고, 애도 기간이 끝나고 며칠 후 벌어진 유월절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3천 명을 죽였다. 두 율법사가 순교한 3.13일로부터 한 달 뒤인 4.13일이 유월절 준비일이었다.¹⁶⁾

13) 눅 2:21. 안식일이더라도 할례는 반드시 행해야 한다.

14) 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5h0424a

15) Herod Antipas, Harold W. Hoehner. 10 page

하나님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헤롯을 왜 바로 죽이지 않으셨을까? 헤롯 사망일 4.1일이 36년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4.1일과 같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크리스마스

로마의 태양신 아폴로는 솔(Sol) 또는 솔 인빅투스(Sol Invictus, 무적의 태양신)로도 불리었다. Sol은 ‘태양’이라는 뜻이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은 ‘솔 인빅투스의 탄생일’로 불리는 축제일이었다. 율리우스력으로 12월 25일은 동지인데,¹⁷⁾ 밤이 가장 긴 날인 동지 이후에는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동지가 태양신의 탄생일로 여겨졌다. 4세기 중반 로마의 교황 율리우스 1세는 동지인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선포했다.

다음은 2023년 12월 19일에 방영된 TVN의 ‘벌거벗은 세계사’ 130회 크리스마스 특집의 내용 중 사학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는데 12월 25일은 양을 밖에 내놓기에는 너무 추운 날씨다.(누가복음 2:8~20)
- 274년 로마의 아우렐리아누스 황제는 12월 25일을 태양신 솔 인빅투스의 공식 탄생일로 지정했다.
-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 4세기경 이미 12월 25일을 태양신 축제로 즐기던 로마인들을 위해서 로마 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선포했다.
- 중세시대에는 12월 25일부터 12일 동안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겼는데 카톨릭 사제들과 수녀들도 이 기간에 파티를 즐겼다.
- 종교개혁 이후 청교도들은 우상 숭배적이고 사악한 행위라는 이유로 1644년 영국 의회에서 크리스마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애너그램(Anagram)이란 단어의 철자 위치를 바꾸어서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를 만드는 것이다. 산타클로스(Santa Claus)의 Santa는 Satan(사탄)의 애너그램이고 Claus는 Lucas(루카스)의 애너그램이다. 루카스는 뉴 에이지(New Age)¹⁸⁾ 운동에서

16) 예수의 생애와 고대 이스라엘 달력 21쪽. 기원전 유대력은 히브리력 계산기로 알 수 없거나 잘못 표시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날짜를 찾았다. 기원후 유대력은 이 책과 히브리력 계산기가 일치한다.

17) 그레고리력으로는 12월 22일 또는 23일이 동지이다.

18) 세상 만물이 모두 신이라고 주장하는 범신론에 기초하고 있다.

부르는 루시퍼(Lucifer)의 다른 이름이다.

동방의 별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보았던 별은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가 동방박사가 헤롯을 만난 이후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인도했다.(마 2:9)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는 부분은 KJV 영어 성경에서 과거진행형이 아닌 과거형이다.

마태복음(마) 2:9~10 -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the star, which they saw in the east)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야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처음 본 이후 계속 보였던 별이라면 그들이 별을 보고 새삼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별은 마치 비행체처럼 그들을 앞서 인도하기도 하고 머물러 서기도 하였다.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의 움직임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의 모든 별이 자전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움직임은 자전과 구별되는 특별한 움직임이다.

혜성은 움직이면서 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천체이다. 혜성으로 추정되는 그 별은 처음 나타난 후 1년 반 뒤에 다시 나타났다. 헤롯은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의 2세 이하 영아를 모두 죽였다. 헤롯은 아마도 처음 별이 나타난 때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생각한 듯하다. 어떤 이는 이 별이 초신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초신성은 움직이는 별이 아니다.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대근접을 동방의 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대근접이 나타난 BC 7년을 예수님의 탄생 연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⁹⁾ 그러나 성경에는 단수로 '별(the star)'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두 개의 별은 동방의 별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목성과 토성은 비행체처럼 움직이거나 멈출 수 있는 별이 아니다. 목성과 토성의 영어 이름은 로마의 신이었던 주피터(Jupiter)와 새턴(Saturn)이다.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제우스와 크로노스이다.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아버지이다. 악한 자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제우스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19) BC 7년이 탄생 연도면 공생애 시작 나이가 35세이므로 성경 기록과 맞지 않음.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

애큐매니컬 운동, 곧 종교통합 운동을 하는 자들은 카톨릭을 믿는 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주장한다. 어찌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실 수도 있으니 우상숭배를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의 구원을 두고 도박을 하는 자이다. 구원은 확률 게임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이방의 여인들을 첩으로 취하고 그들을 위해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지었던 솔로몬 왕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로 들기도 한다. 이 죄에 대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었다.

사무엘하(삼하) 7:13~15 -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으나 구원받았다. 그 역시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다.

신명기(신) 9:20 -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 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상숭배의 경계를 허물려는 행위는 온당치 못하다.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표, 곧 카톨릭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다.

요한계시록(계) 14:9~11 -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에서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용서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기록했다.

요한일서(요일) 5:16 -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꾀방하는 죄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성령을 꾀방하는 자는 죄 사함을 영원히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막) 3:28~29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종교통합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WCC, WEA 등과 같은 단체와 교류를 하려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과 성령이 없는 개신교인들은 우상숭배의 죄 위에 한 가지 죄를 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려는 죄이다. 이 죄를 지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히브리서(히) 6:4~6 -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솔로몬은 초대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면서 우상숭배의 길로 빠진 초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개신교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이다. 우상숭배를 행하여도 구원해주실지 모르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주신 예표가 아니다.

수건에 덮인 진실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바위꾼이 종이컵 세 개 중 한 개에만 주사위를 넣어놓고 주사위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맞춰보라고 했을 때,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종이컵 세 개 중에 한 개에는 분명히 주사위가 있겠죠”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역사적 사실들, 특별히 왕의 재위연도와 관련해서 두 개 이상의 가능성을 말한다면,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사위가 들어있는 종이컵이 하나인

것처럼 진실도 하나이다.

이 책에서 언급된 왕의 즉위연도는 모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근거로 한다. 브리태니커에 의하면 티베리우스의 재위연도는 AD 14년이다. 그의 전임 황제이자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AD 14년에 사망했다. 로마 황제의 임기는 종신제이기 때문에 티베리우스는 AD 14년 이전에 즉위식을 거행할 수 없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자료들을 제시해도 신뢰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 불가지론에 빠져서 진실을 외면하려 한다. 그들이 진실을 듣거나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얼굴에 두 장의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이다.

한 장의 수건은 오랜 세월 지켜진 전통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다. 그러나 이 전통은 오랜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카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오랫동안 지켜왔다고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생각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도 없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나 부활하신 날이 아니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연도 역시 그렇다.

나머지 한 장의 수건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던 바리새인들(마 21:23)과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며(마 13:55) 예수님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의 얼굴에 덮여있던 수건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바리새인들이 아닌 어부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셨다.

예정(선택과 유기) :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성전의 일부로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기 전 미리 어떤 벽돌을 사용하실지 설계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예정이라고 부른다.(엡 2:20~22)

이 예정은 선택과 유기(omit)의 이중적 예정으로서, 성전에 쓰일 벽돌은 택함 받은 사람들, 성전 밖에 방치된 채 남겨진 벽돌은 유기된 자들이라고 불린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9:18)

벽돌 스스로 나는 성전에 쓰이고 싶다고 할 수 없고 오직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는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 9:16)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엡 2:8), “양자의 영을 받은 것”(롬 8:15)인데, 누구에게 선물을 줄지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권리이고 누구를 양자로 삼을지는 양부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공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한다거나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인간 세상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인과관계의 조각들로 이루어졌기에, 사람들은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그것에 맞추어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행위 구원론자들이 말하는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선행이라고 오해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사형수가 행한 선행은 그의 사형죄의 짓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은 마치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로 집을 사려는것 만큼이나 무모하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열매이며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로 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선한 일을 친히 이루신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하나님은 성도가 미래에 선이나 악을 행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성도를 선택하시거나 유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오직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실 성도를 택하시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그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광롭게 하신다.(롬 9:11~13, 엡1:4~6, 롬 8:30)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를 부르신다.(엡 2:8)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믿는다 하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없다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때가 차면 성령께서 비로소 성도에게 모든 진리를 친히 가르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요 14:26, 요 16:13, 요일 2:27)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신다. (갈 3:13, 벧후 3:13)

하나님은 영혼 없는 꼭두각시 인형을 다루듯 성도의 생각을 인위적으로 조종하지 않고,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감추어졌던 진리를 성령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시 44:3)

칭의(거룩하게 나는 것) : 생명 나무이신 그리스도

에덴동산의 생명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 “나는 생명의 떡이니”(요 6:35),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요일 5:20).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 나무를 먹는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요 6:54).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곧 그가 유월절 어린양으로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속삭인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창 3:5).

나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 행위 구원론자, 인본주의자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공로, 나의 선행, 곧 나로 비롯되는 “어떤 것”을 성경에서는 선악과라고 부른다. 이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지만(창 3:6) 사탄의 속삭임 같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헛될 뿐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전제 조건인 칭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요 1:13),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요 3:5),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후 5:17) 이는 창조의 영역이므로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자신이 이 창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고개를 치켜세우는 것은 자신을 창조주에 비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아담의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한 세리에게서 배워야 한다.(눅 18:13)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생명 나무를 먹는 것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은 아담이 생명 나무 열매 먹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다.(창 2:16) 그러나 그는 선악과를 선택했다. 생명 나무 대신 선악과를 먹거나, 생명 나무를 먹음으로써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리석게도 “더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선악과를 먹는다면, 곧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로 “더 완벽한 구원”을 이루려 한다면, 그는 아담

처럼 자신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불경함을 무릅쓰고 감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칭의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성도의 구원에 대해 절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절반의 영광은 성도 자신에게 돌리는 자녀를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반란죄이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대역죄인의 핏줄로서 사형집행을 피할 수 없다.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감옥에서 선을 행한다고 한들 그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동료 사형수들에게서 약간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사형수의 신분으로는 그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렇다.(고전 13:3)

오직 왕이 그에게 내리는 특별사면 외에는 그가 사형수의 신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특별사면은 오직 왕의 자비에 의한 것이며 사형수의 어떤 노력도 이 사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우리는 선을 행한 사형수가 아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형수를 특별사면했다는 이유로 왕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 그것은 왕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특별사면을 받아 죄인의 신분을 벗은 후에야 그와 교통할 수 있다.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없다.

공로주의, 행위 구원론의 오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농부와 나무, 도공과 도자기와 같이 수동적인 관계임에도 동업자나 협업자인 것처럼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칭의와 성화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예비해주셨다.

농부는 올해에는 어떤 나무를 얼마나 심을지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다. 하나님에게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자들을 예정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권리가 있다.(엡 1:4~5, 롬 8:30)

농부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딸감으로 쓸 나무를 선택해서 심거나 도공이 공훈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선택해서 만들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다.

농부는 처음부터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을지 선택한다. 한번 선택한 수종이 중간에 바뀌는 일은 없다. 과일나무가 딸감 나무로, 딸감 나무가 과일나무로 바뀌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도 이처럼 선택을 바꾸지 않으실 권리가 있다.

성화(거룩하게 살아감) :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과일나무는 가뭄이 들고 병충해를 입어 잠시 죽은 나무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때가 되면 생명수가 공급되어 온전히 회복되고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생명수는 나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없고 오직 농부를 통해서만 공급된다. 나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는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스스로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해가 비추고 농부가 생명수를 공급하고 가꾸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해는 성부 하나님이고, 농부는 그리스도시며, 생명수는 성령이시다. 자신이 해 없이도 농부나 물이 없이도 잘 자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곧 나의 능력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룰 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아담처럼 오만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무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뿌리로 물을 받아 흡수하고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받아들인 것뿐이다. 성도의 거룩한 삶도 그렇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성도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 벰전 1:16),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요일 3:9) 이 말씀들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을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행 20:24) 바울조차 죄의 유혹을 받는다고 탄식했는데 누가 그보다 더 거룩하여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을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3~24) 성도는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다투는 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요일 3:9)라는 말씀의 속뜻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매 순간 죄를 짓지만, 성도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그 죄를 사하심으로 마치 성도가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

요한일서 3:9절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 속뜻을 다시 되새겨 보자.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그리스도의 영)가 그의 속에 거함

이요 그도 범죈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요일 3:9)

보혜사(도우시는 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성도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도우신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다.(롬 8:26) 구원받은 성도라면 “더 완벽한 구원”을 이룰만한 “완전한 의”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탄의 속삭임으로부터 우리는 귀를 달아야 한다.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라는 말씀에 이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 14:16)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이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 18:27)

성도는 죄를 지었다고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 않고(창 3:8) 하나님이 나의 의를 빛 같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간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시 37:5~6), “그는 넘어나 아주 옆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시 37:24)

기원전 6~4년의 유대력

기원후 1년 이후의 유대력 : 히브리력 계산기

그레고리력을 유대력으로 변환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ko.calcuworld.com/달력/히브리력

www.fourmilab.ch/documents/calendar

기원전 6~4년의 유대력 : 「예수의 생애와 고대 이스라엘 달력」

이 책에 나오는 BC 4년의 유대력은 한국기독교정보학회에서 2001년에 발간한 「예수의 생애와 고대 이스라엘 달력」를 참고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예장합동 교단의 안병삼 목사님이다. 기원전 유대력은 히브리력 계산기로 알 수 없거나 잘못 표시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날짜를 찾았다. 기원후 유대력은 이 책과 히브리력 계산기가 일치한다. BC 5~6년의 유대력은 이 BC 4년의 유대력을 기준으로 저자가 만든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

BC 6년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5 엘룰	2 16 엘룰	3 17 엘룰	4 18 엘룰	5 19 엘룰
6 20 엘룰	7 21 엘룰	8 22 엘룰	9 23 엘룰	10 24 엘룰	11 25 엘룰	12 26 엘룰
13 27 엘룰	14 28 엘룰	15 29 엘룰	16 1 티슈리	17 나팔절 2 티슈리	18 3 티슈리	19 4 티슈리
20 5 티슈리	21 6 티슈리	22 7 티슈리	23 8 티슈리	24 9 티슈리	25 10 티슈리	26 11 티슈리
27 12 티슈리	28 13 티슈리	29 14 티슈리	30 15 티슈리			

BC 6년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6 티슈리	2 17 티슈리	3 18 티슈리
4 19 티슈리	5 20 티슈리	6 21 티슈리	7 22 티슈리	8 23 티슈리	9 24 티슈리	10 25 티슈리
11 26 티슈리	12 27 티슈리	13 28 티슈리	14 29 티슈리	15 30 티슈리	16 1 헤슈반	17 2 헤슈반
18 3 헤슈반	19 4 헤슈반	20 5 헤슈반	21 6 헤슈반	22 7 헤슈반	23 8 헤슈반	24 9 헤슈반
25 10 헤슈반	26 11 헤슈반	27 12 헤슈반	28 13 헤슈반	29 14 헤슈반	30 15 헤슈반	31 16 헤슈반

예수님의 생애

BC 6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7 헤슈반	2 18 헤슈반	3 19 헤슈반	4 20 헤슈반	3 21 헤슈반	6 22 헤슈반	7 23 헤슈반
8 24 헤슈반	9 25 헤슈반	10 26 헤슈반	11 27 헤슈반	12 28 헤슈반	13 사가랴 성전봉사일 29 헤슈반	14 1 키슬레브
15 2 키슬레브	16 3 키슬레브	17 4 키슬레브	18 5 키슬레브	19 6 키슬레브	20 7 키슬레브	21 8 키슬레브
22 9 키슬레브	23 10 키슬레브	24 11 키슬레브	25 12 키슬레브	26 13 키슬레브	27 14 키슬레브	28 15 키슬레브
29 16 키슬레브	30 17 키슬레브					

BC 6년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8 키슬레브	2 19 키슬레브	3 20 키슬레브	4 21 키슬레브	5 22 키슬레브
6 23 키슬레브	7 24 키슬레브	8 25 키슬레브	9 26 키슬레브	10 27 키슬레브	11 28 키슬레브	12 29 키슬레브
13 30 키슬레브	14 1 테베트	15 2 테베트	16 3 테베트	17 4 테베트	18 5 테베트	19 6 테베트
20 7 테베트	21 8 테베트	22 9 테베트	23 10 테베트	24 11 테베트	25 12 테베트	26 13 테베트
27 14 테베트	28 15 테베트	29 16 테베트	30 17 테베트	31 18 테베트		

예수님의 생애

BC 5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9 테베트	2 20 테베트
3 21 테베트	4 22 테베트	5 23 테베트	6 24 테베트	7 25 테베트	8 26 테베트	9 27 테베트
10 28 테베트	11 29 테베트	12 1 세바트	13 2 세바트	14 3 세바트	15 4 세바트	16 5 세바트
17 6 세바트	18 7 세바트	19 8 세바트	20 9 세바트	21 10 세바트	22 11 세바트	23 12 세바트
24 13 세바트	25 14 세바트	26 15 세바트	27 16 세바트	28 17 세바트	29 18 세바트	30 19 세바트
31 20 세바트						

BC 5년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1 세바트	2 22 세바트	3 23 세바트	4 24 세바트	5 25 세바트	6 26 세바트
7 27 세바트	8 28 세바트	9 29 세바트	10 30 세바트	11 1 아달	12 2 아달	13 3 아달
14 4 아달	15 5 아달	16 6 아달	17 7 아달	18 8 아달	19 9 아달	20 10 아달
21 11 아달	22 12 아달	23 13 아달	24 14 아달	25 15 아달	26 16 아달	27 17 아달
28 18 아달						

예수님의 생애

BC 5년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9 아달	2 20 아달	3 21 아달	4 22 아달	5 23 아달	6 24 아달
7 25 아달	8 26 아달	9 27 아달	10 28 아달	11 29 아달	12 30 아달	13 1 아달2
14 2 아달2	15 3 아달2	16 4 아달2	17 5 아달2	18 6 아달2	19 7 아달2	20 8 아달2
21 9 아달2	22 10 아달2	23 11 아달2	24 12 아달2	25 13 아달2	26 14 아달2	27 15 아달2
28 16 아달2	29 17 아달2	30 18 아달2	31 19 아달2			

BC 5년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0 아달2	2 21 아달2	3 22 아달2
4 23 아달2	5 24 아달2	6 25 아달2	7 26 아달2	8 27 아달2	9 28 아달2	10 29 아달2
11 1 니산	12 2 니산	13 3 니산	14 4 니산	15 5 니산	16 6 니산	17 7 니산
18 8 니산	19 9 니산	20 10 니산	21 11 니산	22 12 니산	23 13 니산	24 14 니산
25 15 니산	26 16 니산	27 17 니산	28 18 니산	29 19 니산	30 20 니산	

예수님의 생애

BC 5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1 니산
2 22 니산	3 23 니산	4 24 니산	5 25 니산	6 26 니산	7 27 니산	8 28 니산
9 29 니산	10 30 니산	11 1 이야르	12 2 이야르	13 마리아 잉태일 3 이야르 4 이야르	14 4 이야르	15 5 이야르
16 6 이야르	17 7 이야르	18 8 이야르	19 9 이야르	20 10 이야르	21 11 이야르	22 12 이야르
23 13 이야르	24 14 이야르	25 15 이야르	26 16 이야르	27 17 이야르	28 18 이야르	29 19 이야르
30 20 이야르	31 21 이야르					

BC 5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2 이야르	2 23 이야르	3 24 이야르	4 25 이야르	5 26 이야르	6 27 이야르	7 28 이야르
8 29 이야르	9 1 시반	10 2 시반	11 3 시반	12 4 시반	13 5 시반	14 6 시반
15 7 시반	16 8 시반	17 9 시반	18 10 시반	19 11 시반	20 12 시반	21 13 시반
22 14 시반	23 15 시반	24 16 시반	25 17 시반	26 18 시반	27 19 시반	28 20 시반
29 21 시반	30 22 시반					

예수님의 생애

BC 5년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3 시반	2 24 시반	3 25 시반	4 26 시반	5 27 시반
6 28 시반	7 29 시반	8 30 시반	9 1 타무즈	10 2 타무즈	11 3 타무즈	12 4 타무즈
13 5 타무즈	14 6 타무즈	15 7 타무즈	16 8 타무즈	17 9 타무즈	18 10 타무즈	19 11 타무즈
20 12 타무즈	21 13 타무즈	22 14 타무즈	23 15 타무즈	24 16 타무즈	25 17 타무즈	26 18 타무즈
27 19 타무즈	28 20 타무즈	29 21 타무즈	30 22 타무즈	31 23 타무즈		

BC 5년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4 타무즈	2 25 타무즈
3 26 타무즈	4 27 타무즈	5 28 타무즈	6 29 타무즈	7 1 아브	8 2 아브	9 3 아브
10 4 아브	11 5 아브	12 6 아브	13 7 아브	14 8 아브	15 9 아브	16 10 아브
17 11 아브	18 12 아브	19 13 아브	20 14 아브	21 15 아브	22 16 아브	23 17 아브
24 18 아브	25 19 아브	26 20 아브	27 21 아브	28 22 아브	29 23 아브	30 24 아브
31 25 아브						

예수님의 생애

BC 5년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6 아브	2 27 아브	3 28 아브	4 29 아브	5 30 아브	6 1 엘룰
7 2 엘룰	8 3 엘룰	9 4 엘룰	10 5 엘룰	11 6 엘룰	12 7 엘룰	13 8 엘룰
14 9 엘룰	15 10 엘룰	16 11 엘룰	17 12 엘룰	18 13 엘룰	19 14 엘룰	20 15 엘룰
21 16 엘룰	22 17 엘룰	23 18 엘룰	24 19 엘룰	25 20 엘룰	26 21 엘룰	27 22 엘룰
28 23 엘룰	29 24 엘룰	30 25 엘룰				

BC 5년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6 엘룰	2 27 엘룰	3 28 엘룰	4 29 엘룰
5 1 티슈리	6 2 티슈리	7 3 티슈리	8 4 티슈리	9 5 티슈리	10 6 티슈리	11 7 티슈리
12 8 티슈리	13 9 티슈리	14 10 티슈리	15 11 티슈리	16 12 티슈리	17 13 티슈리	18 14 티슈리
19 15 티슈리	20 16 티슈리	21 17 티슈리	22 18 티슈리	23 19 티슈리	24 20 티슈리	25 21 티슈리
26 22 티슈리	27 23 티슈리	28 24 티슈리	29 25 티슈리	30 26 티슈리	31 27 티슈리	

예수님의 생애

BC 5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8 티슈리
2 29 티슈리	3 30 티슈리	4 1 헤슈반	5 2 헤슈반	6 3 헤슈반	7 4 헤슈반	8 5 헤슈반
9 6 헤슈반	10 7 헤슈반	11 8 헤슈반	12 9 헤슈반	13 10 헤슈반	14 11 헤슈반	15 12 헤슈반
16 13 헤슈반	17 14 헤슈반	18 15 헤슈반	19 16 헤슈반	20 17 헤슈반	21 18 헤슈반	22 19 헤슈반
23 20 헤슈반	24 21 헤슈반	25 22 헤슈반	26 23 헤슈반	27 24 헤슈반	28 25 헤슈반	29 26 헤슈반
30 27 헤슈반						

BC 5년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8 헤슈반	2 29 헤슈반	3 1 키슬레브	4 2 키슬레브	5 3 키슬레브	6 4 키슬레브
7 5 키슬레브	8 6 키슬레브	9 7 키슬레브	10 8 키슬레브	11 9 키슬레브	12 10 키슬레브	13 11 키슬레브
14 12 키슬레브	15 13 키슬레브	16 14 키슬레브	17 15 키슬레브	18 16 키슬레브	19 17 키슬레브	20 18 키슬레브
21 19 키슬레브	22 20 키슬레브	23 21 키슬레브	24 22 키슬레브	25 23 키슬레브	26 24 키슬레브	27 25 키슬레브
28 26 키슬레브	29 27 키슬레브	30 28 키슬레브	31 29 키슬레브			

예수님의 생애

BC 4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30 키슬레브	2 1 테베트	3 2 테베트
4 3 테베트	5 4 테베트	6 5 테베트	7 6 테베트	8 7 테베트	9 8 테베트	10 9 테베트
11 10 테베트	12 11 테베트	13 12 테베트	14 13 테베트	15 14 테베트	16 15 테베트	17 16 테베트
18 17 테베트	19 18 테베트	20 19 테베트	21 20 테베트	22 21 테베트	23 22 테베트	24 23 테베트
25 24 테베트	26 25 테베트	27 26 테베트	28 27 테베트	29 28 테베트	30 29 테베트	31 1 세바트

BC 4년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세바트	2 3 세바트	3 4 세바트	4 5 세바트	5 6 세바트	6 7 세바트	7 8 세바트
8 9 세바트	9 10 세바트	10 11 세바트	11 12 세바트	12 13 세바트	13 14 세바트	14 15 세바트
15 16 세바트	16 17 세바트	17 18 세바트	18 19 세바트	19 20 세바트	20 21 세바트	21 22 세바트
22 23 세바트	23 24 세바트	24 25 세바트	25 26 세바트	26 27 세바트	27 28 세바트	28 29 세바트

예수님의 생애

BC 4년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30 세바트	2 1 아달	3 2 아달	4 3 아달	5 4 아달	6 5 아달	7 6 아달
8 7 아달	9 8 아달	10 9 아달	11 10 아달	12 에스더 금식일 11 아달	13 예수님 탄생일 12~ 13 아달	14 13 아달
15 부림절 14 아달	16 수산 부림절 15 아달	17 16 아달	18 17 아달	19 18 아달	20 19 아달	21 예수님 할례일 20 아달
22 21 아달	23 22 아달	24 23 아달	25 24 아달	26 25 아달	27 26 아달	28 27 아달
29 28 아달	30 29 아달	31 1 니산				

BC 4년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헤롯 사망일 2 니산	2 3 니산	3 4 니산	4 5 니산
5 6 니산	6 7 니산	7 8 니산	8 9 니산	9 10 니산	10 11 니산	11 12 니산
12 13 니산	13 유월절 준비일 14 니산	14 15 니산	15 16 니산	16 17 니산	17 18 니산	18 19 니산
19 20 니산	20 21 니산	21 22 니산	22 23 니산	23 24 니산	24 25 니산	25 26 니산
26 27 니산	27 28 니산	28 29 니산	29 30 니산	30 1 이야르		

예수님의 생애

BC 4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이야르	2 3 이야르
3 4 이야르	4 5 이야르	5 6 이야르	6 7 이야르	7 8 이야르	8 9 이야르	9 10 이야르
10 11 이야르	11 12 이야르	12 13 이야르	13 14 이야르	14 15 이야르	15 16 이야르	16 17 이야르
17 18 이야르	18 19 이야르	19 20 이야르	20 21 이야르	21 22 이야르	22 23 이야르	23 24 이야르
24 25 이야르	25 26 이야르	26 27 이야르	27 28 이야르	28 29 이야르	29 1 시반	30 2 시반
31 3 시반						

BC 4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4 시반	2 5 시반	3 6 시반	4 7 시반	5 8 시반	6 9 시반
7 10 시반	8 11 시반	9 12 시반	10 13 시반	11 14 시반	12 15 시반	13 16 시반
14 17 시반	15 18 시반	16 19 시반	17 20 시반	18 21 시반	19 22 시반	20 23 시반
21 24 시반	22 25 시반	23 26 시반	24 27 시반	25 28 시반	26 29 시반	27 30 시반
28 1 타무즈	29 2 타무즈	30 3 타무즈				

예수님의 생애

BC 4년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4 타무즈	2 5 타무즈	3 6 타무즈	4 7 타무즈
5 8 타무즈	6 9 타무즈	7 10 타무즈	8 11 타무즈	9 12 타무즈	10 13 타무즈	11 14 타무즈
12 15 타무즈	13 16 타무즈	14 17 타무즈	15 18 타무즈	16 19 타무즈	17 20 타무즈	18 21 타무즈
19 22 타무즈	20 23 타무즈	21 24 타무즈	22 25 타무즈	23 26 타무즈	24 27 타무즈	25 28 타무즈
26 29 타무즈	27 1 아브	28 2 아브	29 3 아브	30 4 아브	31 5 아브	

BC 4년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6 아브
2 7 아브	3 8 아브	4 9 아브	5 10 아브	6 11 아브	7 12 아브	8 13 아브
9 14 아브	10 15 아브	11 16 아브	12 17 아브	13 18 아브	14 19 아브	15 20 아브
16 21 아브	17 22 아브	18 23 아브	19 24 아브	20 25 아브	21 26 아브	22 27 아브
23 28 아브	24 29 아브	25 30 아브	26 1 엘룰	27 2 엘룰	28 3 엘룰	29 4 엘룰
30 5 엘룰	31 6 엘룰					

예수님의 생애

BC 4년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7 엘룰	2 8 엘룰	3 9 엘룰	4 10 엘룰	5 11 엘룰
6 12 엘룰	7 13 엘룰	8 14 엘룰	9 15 엘룰	10 16 엘룰	11 17 엘룰	12 18 엘룰
13 19 엘룰	14 20 엘룰	15 21 엘룰	16 22 엘룰	17 23 엘룰	18 24 엘룰	19 25 엘룰
20 26 엘룰	21 27 엘룰	22 28 엘룰	23 29 엘룰	24 1 티슈리	25 2 티슈리	26 3 티슈리
27 4 티슈리	28 5 티슈리	29 6 티슈리	30 7 티슈리			

BC 4년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8 티슈리	2 9 티슈리	3 10 티슈리
4 11 티슈리	5 12 티슈리	6 13 티슈리	7 14 티슈리	8 15 티슈리	9 16 티슈리	10 17 티슈리
11 18 티슈리	12 19 티슈리	13 20 티슈리	14 21 티슈리	15 22 티슈리	16 23 티슈리	17 24 티슈리
18 25 티슈리	19 26 티슈리	20 27 티슈리	21 28 티슈리	22 29 티슈리	23 30 티슈리	24 1 헤슈반
25 2 헤슈반	26 3 헤슈반	27 4 헤슈반	28 5 헤슈반	29 6 헤슈반	30 7 헤슈반	31 8 헤슈반

예수님의 생애

BC 4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9 헤슈반	2 10 헤슈반	3 11 헤슈반	4 12 헤슈반	5 13 헤슈반	6 14 헤슈반	7 15 헤슈반
8 16 헤슈반	9 17 헤슈반	10 18 헤슈반	11 19 헤슈반	12 20 헤슈반	13 21 헤슈반	14 22 헤슈반
15 23 헤슈반	16 24 헤슈반	17 25 헤슈반	18 26 헤슈반	19 27 헤슈반	20 28 헤슈반	21 29 헤슈반
22 1 키슬레브	23 2 키슬레브	24 3 키슬레브	25 4 키슬레브	26 5 키슬레브	27 6 키슬레브	28 7 키슬레브
29 8 키슬레브	30 9 키슬레브					

BC 4년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0 키슬레브	2 11 키슬레브	3 12 키슬레브	4 13 키슬레브	5 14 키슬레브
6 15 키슬레브	7 16 키슬레브	8 17 키슬레브	9 18 키슬레브	10 19 키슬레브	11 20 키슬레브	12 21 키슬레브
13 22 키슬레브	14 23 키슬레브	15 24 ~ 25 키슬레브	16 수전절 첫날 25 키슬레브	17 26 키슬레브	18 27 키슬레브	19 28 키슬레브
20 29 키슬레브	21 30 키슬레브	22 1 테베트	23 2 테베트	24 3 테베트	25 4 테베트	26 5 테베트
27 6 테베트	28 7 테베트	29 8 테베트	30 9 테베트	31 10 테베트		